

월간 국립극장

1977년 4월 창간된 국립극장의 정기간행물은

지난 48년간 『갈채』, 『미르』 등 제호를 달리하며 공연예술 담론을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해오름극장 재개관이라는

역사적 대전환기와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월간 국립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독자 여러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발행일 2025년 11월 1일

발행인 박인건

책임 프로듀서 우다솔

프로듀서 박은영

기획 및 제작 백한결

사진 전강인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등록번호 서울중, 라00795

등록일자 2023년 12월 29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중앙극장

문의 02-2280-5816, ntbook@korea.kr

편집·디자인 (주)디자인소호

© 책에 실린 글·그림·사진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국립극장과 해당 자료 소장자에게 있으며,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사·전재·변형·송신할 수 없습니다.

※ 책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 혹은 인터뷰이 개인의 견해를 담고 있으며, 국립극장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월간 국립극장』은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친환경 인증 받은 종이를 제작합니다.

※ ISSN 2982-5423

Contents

05 유랑 끝에 만난 문장 남산, 가을 기운에 물들다

내다

08 스페셜 ❶ 세상을 뒤집는 ‘K-히어로’가 온다

12 스페셜 ❷ 숫자가 증명한 흥과 해학, 국립극장 마당놀이 10년

국립극장 마당놀이 <홍길동이 온다>

달다

18 미리보기 ❶ 전통 위에 세운 창의적 ‘삶’의 무대

22 미리보기 ❷ 질주의 무대, 마침내 서울 상륙

24 미리보기 ❸ 보는 것과 추는 것 사이

26 미리보기 ❹ K-가곡,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울림

28 미리보기 ❺ 줄광대에서 명창이 된 사내, 그가 돌아왔다

32 미리보기 ❻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10주년 공연 - 역사를 애도하는 방식

34 미리보기 ❼ 시처럼 바라보다

36 미리보기 ❽ 소리로 쌓은 세월, 여섯 시간의 춘향가

40 다시보기 ❶ 파격을 넘어 충격을 던지다

44 다시보기 ❷ 다정함으로 무장해제

48 다시보기 ❸ 창작의 온실

十 공연 더하기 도시의 시간을 걷다, 역사와 예술을 따라 걷는 로컬 산책

맺다

54 예술가의 초상 국립창극단 최용석

58 세계무대 영국 공연예술의 심장

풀다

66 남산, 예술路 걷다 단풍길 걸으며 가을 마중

70 예술배움 ‘가족’과 ‘함께’ 행복한 동행

74 온라인 전시 한국적 해학과 풍자를 만나다

76 청년기자단이 간다! 문화산업의 본거지, 파주로!

80 국립극장 소식

81 국립극장 달력

82 극장 이용안내

영국 내셔널시어터 <인터 알리아>

영국 공연예술의 심장

판사이자 엄마, 두 역할의 위태로운 삶을

내셔널시어터 무대에서 밀도 있게 그려 내다.

National Theatre <Inter Alia>

At the Heart of the British Performing Arts

Play <Inter Alia> - There is a judge who is also a mother. Her life in jeopardy unfolds intensely on stage at the National Theatre.



영국 내셔널시어터는 런던 사우스뱅크, 템스강을 마주보는 요지에 자리한다. 바로 옆에는 영국영화협회^{BFI}가 있고, 런던아이, 사우스뱅크센터, 테이트모던 등 주요 문화 명소가 밀집해 관광객과 시민 모두에게 친숙하다. 내셔널시어터는 1963년 로런스 올리비에가 창립했고, 1976년 올리비에극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관했다. 건축가 데니스 라스던이 설계한 브루탈리즘 양식의 대표작으로, 영국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극장 내부는 세 개의 주요 공연장으로 구성된다. 올리비에극장(약 1,160석), 리틀턴극장(약 890석), 도프먼극장(약 400석)으로 대형 스펙터클부터 실험적 소극장 공연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 내셔널시어터는 일상과 예술이 맞닿는 열린 공간으로 기능하며, 영국을 대표할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공연예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현대의 모성과 남성성을 정면으로 응시한 뜨거운 신작

<인터 알리아>는 2025년 7월 23일 개막해 9월 13일까지 리틀턴극장에서 공연되었다. <프리마 파시>의 성공으로 주목받은 극작가 수지 밀러와 연출가 저스틴 마틴의 신작으로 주인공 제시카 역에는 세계적인 배우 로저먼드 파이크가 캐스팅되어 내셔널시어터 데뷔 무대를 장식했다. 평균 100파운드 내외의 다소 높은 티켓 가격에도 초연부터 전 회차 매진을 기록했고, 올해 웨스트엔드 재공연이 확정되며 작품성과 흥행성을 동시에 입증했다. 9월 4일부터 'NT Live'를 통해 일부 국가의 시네마 상영으로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The National Theatre is located at the South Bank of London facing the Thames, which is a great location for a theatre. Just nearby, you can also find major cultural spots such as the BFI, London Eye, Southbank Centre and Tate Modern. So both tourists and local residents feel familiar with the area. The Theatre was founded in 1963 by Laurence Olivier and it opened its spaces one by one, starting with the Olivier in 1976. Designed by architect Denys Lasdun, the Theatre represents the Brutalist style and has been listed at Grade II in the UK. The Theatre has three spaces: the Olivier (about 1,160 seats), the Lyttelton (about 890 seats) and the Dorfman (about 400 seats). These spaces enable the Theatre to present a wide range of performances including large-scale, spectacular ones and smaller, experimental ones. It is an open venue where daily life and art meet. It is not only Britain's representative theatre but also one of Europe's major venues of the performing arts.

A Hot New Production Gazing at Today's Maternal

Love and Masculinity

The play <Inter Alia> met its audience at the Lyttelton from July 23 to September 13, 2025. It is a recent production by writer Suzie Miller, who drew attention with the success of <Prima Facie>, and director Justin Martin. World-renowned actress Rosamund Pike was cast as Jessica to make her debut on stage at the Theatre. Despite its relatively high ticket price (around 100 pounds), all the shows of the play were sold out and it will also be in the West End soon. All this proves the quality and popularity of the production. Plus, from September 4, audiences in some countries can even enjoy the performance through NT Live screenings.

Inter Alia is a legal term meaning “among other things.” In the play, the term symbolizes the life of a modern woman who juggles multiple roles such as a wife, mother, colleague and friend in addition to her professional identity as a judge. In fact, the legal system depicted in the play has long been male dominant; women had professional access to the system only after the mid-20th century. Even today, women judges make up less than half of the judges in the English and Welsh legal system. The play gazes at the reality and inner burden of women judges who “must” gain authority within such a system.





*Inter Alia*는 라틴어로 ‘among other things(그 밖의 여러 것들 가운데)’라는 법률용어다. 작품 안에서는 ‘판사’라는 직업적 정체성 이외에도 아내, 엄마, 동료, 친구 등 여러 역할을 동시다발적으로 감당하는 현대 여성의 삶을 상징한다. 또한 이극의 주요 배경이 되는 사법 시스템은 오래도록 남성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였다. 여성 법조인의 진입은 20세기 중반 이후에야 본격화되었고, 오늘날에도 영국·웨일스 사법부의 여성 판사 비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해당 연극은 이런 제도적 토대 위에서 여성 판사가 권위를 ‘획득’해야만 하는 현실과 내적 부담을 응시한다.

첫 장면부터 강렬하다. 아들은 드럼을, 남편은 기타를 연주하고, 제시카는 영국 판사의 전통 복장을 무대적으로 재해석한 의상을 입고 로키처럼 마이크를 쥐고 리프트에 올라 등장한다. 권위의 이미지와 록 퍼포먼스의 충돌이 관객에게 강한 첫인상을 남긴다. 무대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가정을 상징한다. 세밀하게 꾸며진 집은 우주선 모듈 혹은 파스텔 톤 캡슐처럼 보여 전체적으로 인공적이고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제시카가 엄마이자 아내의 자리로 돌아올 때, 뒤편 세트가 전진해 집의 형태를 만드는데 마치 우주선이 도킹하듯 다시 결합되어 균형의 회복과 위태로움을 동시에 암시한다. 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집은 왼쪽·오른쪽·상부 세 조각으로 갈라져 그간 완벽하게 유지된 삶이 산산이 조각나는 제시카의 심리를 시각화한다.

정의와 모성, 그리고 ‘심판’과 ‘심판받음’의 이중성

작품의 핵심은 정의와 모성의 충돌이다. 성폭력 사건에서 늘 피해 여성의 편에 서던 판사 제시카는, 가해자의 엄마로서 자신의 아들을 마주한다. 그는 법을 이용해 아들의 죄를 덮어 주고자

The very first scene of the play feels quite intense. Jessica’s son plays the drums and her husband, the electric guitar. Jessica is wearing a traditional robe for British judges, which is reinterpreted for the stage. Just like a rock star, she appears on a lift, holding a microphone. Such a conflict between the image of authority and a rock performance leaves a strong first impression for the audience. The stage symbolizes a home that looks perfect from the outside. The meticulously decorated house looks like a service module or a pastel-colored space capsule, which feels somewhat artificial and unrealistic. When Jessica returns to her place as a mother and wife, the stage set at the back comes forward to reassemble the house, something you would see during spacecraft docking. This seems to illustrate how the family regains its balance which is actually quite precarious. When her son confesses to a crime, the house is divided into left, right and upper parts. This seems to visualize the psyche of Jessica who sees her perfectly maintained life shatter into pieces.

Duality between Justice and Maternal Love, between Judging and Being Judged

In a nutshell, the play is about a conflict between justice and maternal love. As a judge, Jessica used to be on the side of women who fell victim to sexual violence. Now, she faces her own son as an offender’s mother. She tries to make use of the law to keep her son from being punished. But feeling guilty, he chooses to confess to a crime and leaves home. Then the playground at the back of the stage moves forward and Jessica goes back to her past moment when her son got lost. This maximizes her fear of losing him definitely this time. On stage, child actors depict the time when Harry and Amy were much

하지만, 아들은 죄책감 속에서 자수를 선택하고 집을 떠난다. 이때 무대 뒤편의 놀이터가 전면으로 이동하며, 제시카는 아이를 잃어버렸던 과거의 기억으로 회귀한다. 이번에는 정말로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극대화된다. 천진한 어린 시절의 해리와 에이미의 모습이 아역배우들의 등장과 함께 그려지며, 유년의 순진함과 청소년기의 어둠이 비극적으로 대비된다. 여기서 작가인 수지 밀러가 강조한 지점이 선명해진다. 제시카는 타인을 ‘심판’하는 판사이면서 동시에 사회·가정·자기 자신에게 ‘심판받음’ 존재다. 법정 외 냉정한 목소리와 집에서 내밀한 목소리가 겹겹이 공존하고, 작품은 그 내부의 균열을 끝까지 밀어붙이며 드러낸다.

무대적 모티프와 동시대성

작품을 관통하는 모티프는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다. 초반에 반복 등장하는 작은 노란색 파카는 인형극처럼 활용되며, 끊임없는 불안과 상실을 상징한다. 실제 아역배우는 후반부에야 등장하고, 그전까지는 마임과 그림자극이 아이의 존재를 대신한다. 엄마는 아이가 어릴 때는 길을 잃을까(물리적 실종), 청소년이 되면 나쁜 일로 무너질까(도덕적·사회적 붕괴) 두려워한다. 작품은 이처럼 다양한 결의 ‘잃어버림’의 불안이 드리운 그림자를 선명하게 포착한다.

한편 작품은 오늘의 현실과도 공명한다. 영국·웨일스 청소년 사법 통계(2023-2024)에 따르면, 법원 형사처분 아동은 약 1만 2천여 명(전년 대비 8% 증가), 첫 유입자의 84퍼센트가 소년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소년 성범죄는 약 47퍼센트 증가했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돌봄 책임의 성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수치는 작품이 겨냥하는 부모·자녀·사회현상의 이야기가 결코 추상이 아님을 뒷받침하며, 연극은 동시대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무대 위로 불러낸다. 극 중 이 대사는 공연이 끝난 뒤에도 긴 여운으로 남는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자식을 알지 못한다.”

글. 정효정 극단 낭만씨어터(Nangman Theatre) 단장. 현재 영국과 사우디를 오가며 공연 및 문화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Manuel Harlan (National Theatre), 정효정

younger. The innocence of childhood tragically stands in contrast with the darkness of adolescence.

Here, you can see clearly what Suzie Miller is trying to say through the play. That is, Jessica is a judge who judges others but at the same time, she is also someone judged by society, her family and herself. A cold voice in court and an inner voice at home coexist in multiple layers. And the play tells us how far someone’s inner crack could go.

Theatrical Motif and Contemporariness

The motif penetrating the play is a fear of losing one’s child. At the beginning, a yellow puffer jacket appears repeatedly just like in a puppetry show, symbolizing ceaseless anxiety and loss. The child actor appears toward the end of the play and before that, his existence is replaced by mime and shadow play. When he is a child, his mother is afraid that he may get lost (physical loss). When he is a teenager, she is afraid that he may collapse for some bad reason (moral, social collapse). The play clearly illustrates the shadows thrown by such multiple fears of loss.

In the meantime, the play also resonates with today’s reality. English and Welsh youth justice statistics (2023–2024, Ministry of Justice) indicate that about 12,000 teenagers (an 8%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wer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in court and that 84% of the first-time offenders were boys. During the same period, cases of sexual violence involving teenagers increased about 47%. In legal circles, a gender discrepancy still exists for childrearsers. Such statistics support the idea that the story of parents, children and social phenomena told in the play isn’t something abstract at all. Indeed, the play brings to stage our contemporary society’s inconvenient truths. The following line stays with us long after the end of the play.

“Maybe none of us know our children as much as we think.”

By Hyojung Jung Hyojung Jung is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Nangman Theatre.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 UK and Saudi Arabia, she keeps working on the performing arts and cultural exchange.

Photo by. Manuel Harlan (National Theatre), Hyojung Jung

국립극장 이용안내

편의시설

해오름 북라운지 해오름극장 2층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10:00~18:00, 월요일 휴무

해오름극장 CAFE 해오름극장 1층
평일 11:00~18:00, 토요일 12:00~17:00, 월요일 휴무

어린이놀이터(라운누리) 해오름극장 L층
공연 시작 30분 전부터 공연 종료 시까지 / 02-2280-4213

센트럴윤익 국립극장점 해오름극장 L층
매일 11:00~22:00, 월요일 휴점 / 02-2274-9580

하늘자리 CAFE 해오름극장 원편
매일 10:00~18:00 / 02-2280-4184

제1편의점(하늘힐터_간식) 하늘극장 1층
매일 08:00~22:00 / 02-2280-5817

제2편의점(달힐터_라면편의점) 달오름극장 지층
매일 09:00~20:00 / 02-2280-5817

공연예술자료실 별관 지하 1층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02-2280-5834, 4025~6
※ 공연예술 아카이브 플랫폼 '별별스테이지' 공연 및 도서자료 검색·열람
archive.ntok.go.kr / 031-870-9116

국립극장 오시는 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대중교통
☎ 간선버스 420, 남산순환버스 01 / 🚏 (3호선) 동대입구역,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6호선) 한강진역하차후 버스+도보

셔틀버스
정류장: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 200미터 거리(남산방향)의 남산순환버스 정류장 앞
※ 공연 전 1시간 전부터 20분 전까지 10~15분 간격으로 탄력적 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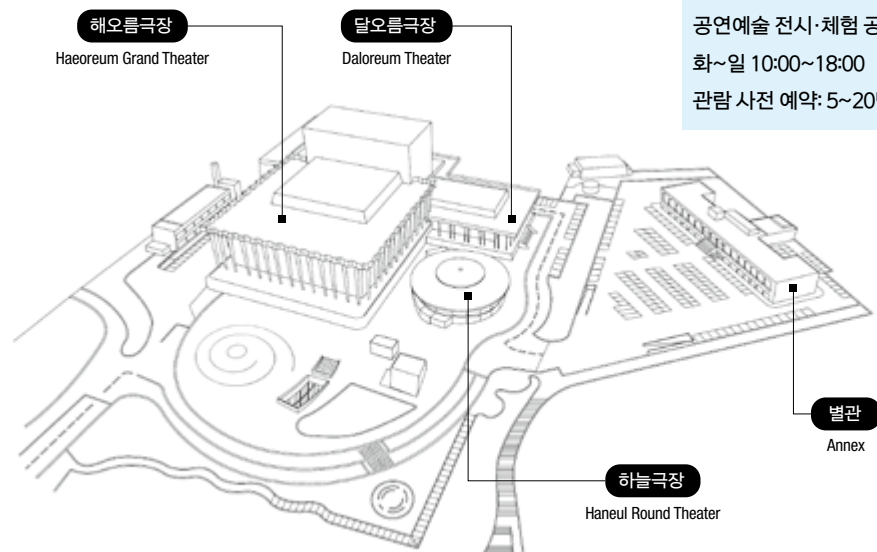
주차안내
05:00~23:00 운영(23시 이후 입차 불가)
최초 30분 1,000원 이후 10분당 500원
※ 공연 관람 시 5시간 미만 5,000원 (1일 최대 1만 원)
※ 편의시설 이용 시 2시간 미만 1만 원 이상 결제 영수증 확인 시 2,000원
※ 교육 수강자 5시간 미만 4,000원 (1일 최대 8,000원)
※ 새벽시간(05:00~09:00) 이용자 10분당 200원

온라인

- 🌐 www.ntok.go.kr
- 📺 ntong2
- 📷 ntong_ntong
- 📘 NTOKstory
- ✉ ntok_
- 📺 국립극장
- 📍 ntok2010

무대예술지원센터·공연예술박물관

주소
경기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16
무대장치·소품·의상 등을 보관하기 위한 수장고와
공연예술 전시·체험 공간입니다.
화~일 10:00~18:00
관람 사전 예약: 5~20명 / 031-870-9110~2



Guide to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About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Founded in 1950,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is the cradle of Korean performing arts and aims to modernize tradition. As a production theater based around three exclusive organizations, the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the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and the National Orchestra Company of Korea, it has been running a repertory season system since 2012. In 2025,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plans to continue to expand services through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mprovements.

Facilities

Haeoreum Book Lounge Haeoreum Grand Theater 2F
Weekdays 09:00~18:00, Weekends and holidays 10:00~18:00
Closed on Mondays

Cafe <Haeoreum Cafe> Haeoreum Grand Theater 1F
Weekdays 11:00~18:00, Saturdays 12:00~17:00
Closed on Mondays

Child Care Kids zone <Laonnuri> Haeoreum Grand Theater LF
Available 30 minutes before the performance begins until the end of the performance / 02-2280-4213

Restaurant <Central yunit> Haeoreum Grand Theater LF
11:00~22:00, Closed on Mondays / 02-2274-9580

Cafe <Haneulzari> Haeoreum Grand Theater Left side
10:00~18:00 / 02-2280-4184

Convenience Store <Haneul Snack Bar>
Haneul Round Theater 1F 08:00~22:00 / 02-2280-5817

Convenience Store <Dal Ramen Bar>
Daloreum Theater Ground Floor 09:00~20:00 / 02-2280-5817

Archives Library for Performing Arts Annex B1F
Monday~Friday 09:00~18:00 (lunch time 12:00~13:00),
02-2280-5834, 4025~6

※ Search and browse archive and books related to performing arts
archive.ntok.go.kr / 031-870-9116

How to get the theater

Address
59 Jangchungdan-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04621)

Public transportation

☎ Blue bus 420, Namsan Circulation Bus 01
🚏 Get off at (line 3) Dongguk University Station,
(line 2·4·5) Dongdaemun History & Culture Park Station,
(line 6) Hangangjin Station and bus+walking

Shuttle bus

Boarding: Line 3 Dongguk University Station Exit 6 In front of Namsan Circulation Bus Stop
※ Available flexibly every 10~15 minutes from 1 hour before to 20 minutes before the performance

Parking information

Operation Time : 05:00~23:00 (unavailable after 23:00)
KRW 1,000 for the first 30 minutes, KRW 500 per 10 minutes after
※ KRW 5,000 for less than 5 hours when watching a performance (maximum KRW 10,000 per day)
※ When using convenience facilities, KRW 2,000 won confirmation of payment receipt of at least KRW 10,000 for less than 2 hours
※ Training participants KRW 4,000 for less than 5 hours (maximum KRW 8,000 per day)
※ KRW 200 won per 10 minutes during early morning hours (05:00~09:00)

Online

- 🌐 www.ntok.go.kr
- 📺 ntong2
- 📷 ntong_ntong
- 📘 NTOKstory
- ✉ ntok_
- 📺 National Theater of Korea
- 📍 ntok2010

Stage Arts Support Center-Museum of Performing Arts

Address
16, Heyri-ro, Tanhyeon-myeon, Paju-si, Gyeonggi-do, Korea(10859)
Visit the theater's storage space (for stage sets, props and costumes) and performing arts exhibition/experience space
Tuesday~Sunday 10:00-18:00
Reservations of 5 to 20 persons required for a visit/tour
031-870-9110~2